

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단상

□ ECB, 일본, 스웨덴, 덴마크, 스위스 등 5개 중앙은행에서 은행 예치금 등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경제권역의 GDP규모는 전세계의 1/4에 달하고 있음

– JP Morgan Chase에 따르면 최근 유통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국채규모가 5.7조달러를 상회

마이너스 금리 도입 중앙은행

국가 (지역)	최근 도입시기	적용 대상	금리수준 ¹⁾ (%)	비고
스웨덴	2014.7 ²⁾	일반은행의 예치금	-1.25	지급준비금 전액
		정책금리	-0.50	7일물Repo금리
덴마크	2012.7	일반은행의 예치금 (중앙은행 CD금리)	-0.65	630억DKK 초과예금
ECB	2014.6	일반은행의 예치금 및 일부 정부예금	-0.30	-
스위스	2014.12	일반은행의 예치금	-0.75	지급준비금의 20배 초과예금
		정책금리	-1.25~-0.25	3개월CHF리보금리
일본	2016.1	일반은행의 예치금	-0.10	마이너스 금리 시행 이후 일본은행의 국채매입을 통해 신규 공급한 자금 등

주: 1) 2016.3.3 기준

2) 스웨덴은 2009.7월 ~ 2010.9월 중에도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 바 있음

자료: 각국 중앙은행 홈페이지, 국제금융센터

□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 인하, 소비지출 확대, 통화가치 하락 등을 유도하여 경기를 부양하는 방안으로 도입

- 이론적으로는 중앙은행이 은행예치금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면 은행은 고객의 예금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고 대출금리도 인하할 수 있음
- 은행의 예금금리가 인하되면 저축자는 예금보다 소비지출을 늘리고 은행은 낮은 금리로 대출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음
- 또한 낮은 금리로 인해 외국자본 유입이 억제됨으로써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유도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
 - * 스위스 중앙은행은 유로화에 대한 스위스프랑 최저환율(당시 1.2CHF/EUR) 방어, 덴마크는 유로화에 대한 고정(peg)환율 유지 등 유로화에 대한 평가절상을 억제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

□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의 정책의도와 달리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

- 마이너스 금리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신호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이 고갈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
- 고객이탈을 우려하여 은행이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를 고객에게 전가하지 못하여 은행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한다는 인식으로 은행 주가가 급락하는 원인으로 작용
- 최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엔화가 오히려 강세를 보임으로써 정책의도 달성에 실패